

조선 관청 최대규모 '연못터' 학계 관심 집중

길이 64m·너비 20m...나주 금성관 동측부지서 발견 조경사 연구 중요 자료...문화재청장도 예산 지원 약속

나주 금성관 동측부지 발굴조사에서 우리나라 지방 관청 중 최대 규모의 연못터와 정자터가 발견(광주일보 1일자 11면)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문화재청도 나선화 청장 등 관계자들이 이례적으로 나주시에 통보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연못·정자터 발굴현장을 다녀가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대적인 복원사업이 기대되고 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동신대 문화박물관(조사단장 이정호)에 의뢰해 지난 1월부터 추진해온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2호인 나주객사 금성관 동측부지에서 건물과 연못의 높이 차를 감안해 쌓은 3단의 계단형 축대와 함께, 축대 아래에서는 길이 64m, 너비 20m의 장방형 대형 연못이 발견됐다. 또 연못 내부에서는 너비 5m의 방형 기단을 갖춘 정자터가 함께 발굴됐으며 이와 함께 분청사·백자 등 도자기편과 목제·철제 등 건축부재, 그리고 지붕 처마를 장식했던 암·수막새 등 다수의 유물이 함께 출토됐다.

연못 내부에서는 임류점사(臨流僉使) 또는 임지점사(臨池僉使)라 쓰인 목서백자편이 출토됐는데, 도자기의 깨진 단면에 관직명을 써서 연못에 던져 놓은 행위에 대한 공금증도 찾아내고 있다.

임류점사 또는 임지점사는 조선시대 서남대교와 빛가람대교 사이에 조성된 역사단지에서 '나주 영산강 역사와 사랑 축제'를 시작으로 국립나주박물관과 전남고분군 일원에서 '마한문화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펼쳐진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나주대교와 빛가람대교 사이에 조성된 역사단지에서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나주 영산강 역사와 사랑 축제'가 열린다.

조항호, 우연이 등이 출연하는 영산강 전국 가요제(17일), 전라필하모니 오케스

트라(18일) 공연 등을 비롯한 나주 시민이 함께하는 한마음 생활체조페스티벌(10일), 제31보병사단 군악대 공연(24일), 나주 시립국악단과 합창단 공연 등 30여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즐거워갈수록 아름다운 영산강변을 구경할 수 있도록 황포돛배를 운행하고 가족과 연인이 함께할 수 있는 바람개비·허수아비 만들기, 풍선아트, 기혼 씨주기, 캐리커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무료 커피숍과 간단한 먹거리 판매 부스도 운영중이다.

또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동안은

마한역사문화유적지인 국립나주박물관과 전남고분군일원에서 '마한인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마한축제 시작된다.

마한의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광주·전남지역 청소년들에게 마한 역사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함께 2000년 마한역사 제



나주 금성관 동측부지에서 발견된 연못터.



나주시에 지난 2일 금성관 동측부지 발굴조사 현장에서 개최한 시민 설명회.

시는 국비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못터 설계에 들어가고, 객사 공간 전체에 대한 정비·복원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성관 주변에 야간조명 경관 등을 설치하는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객사 공간과 대형 연못을 시민과 함께 향유하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나주객사 금성관은 다른 객사 건물과는 달리 팔작(八作)지붕으로 이뤄져 있으며, 객사 정문인 망화루와 금성관 사이의 중문이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 등 매우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인해 역사·건축학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재로 알려져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 종합스포츠파크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자립 시스템 구축한다

나주 종합스포츠파크(사진)에 전력 과열 에너지 등 다종(多種)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시스템이 구축된다.

마이크로 그리드(micro-grid) 에너지 자립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방식은 연료전지와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열 기계통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사업비 14억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 170kW, 태양열 온수 50㎡, 연료전지 발전 20kW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한다.

운동장·수영장·체력단련장 등 각종 스포츠 시설을 갖춘 스포츠파크는 혁신도시 인구증가, 체육시설 개방시간 확대 등으로 전력과 열 에너지 소비가 연간 15% 이상 급증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 효과로 연간 에너지 절감 123.9toe, 어린 소나무 9만6천여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은 연간 온실가스 감축 268tCO2 등이며, 금액으로 연간 1억원에 달한다.

연료전지 발전은 24시간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해 전력계통과 수영장 축열조에 저장해 쓴다. 에너지 생산보다는 소비 효율에 초점을 맞췄다. 전력이 끊겨도 자체 전력공급이 가능해 비상시 스포츠파크를 대피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 기초전력연구원, 민간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9억여원을 지원받는다.

종합스포츠파크는 바로 옆에 KTX 나주역이 자리잡는 등 접근성이 뛰어나 광주하계U대회 등 체육·문화 행사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7일 "스포츠파크를 찾는 연간 100만명의 방문객에게 전력과 열에너지를 효율적 사용하는 모습을 홍보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10월 목사골, 축제의 도시 즐기세요

'영산강 역사와 사랑 축제'·'마한 문화축제' 등 풍성

나주가 10월 한달 동안 축제의 도시로 탈바꿈한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역사단지에서 '나주 영산강 역사와 사랑 축제'를 시작으로 국립나주박물관과 전남고분군 일원에서 '마한문화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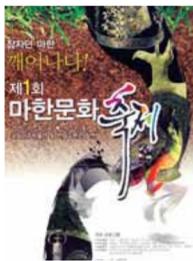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나주대교와 빛가람대교 사이에 조성된 역사단지에서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나주 영산강 역사와 사랑 축제'가 열린다.

조항호, 우연이 등이 출연하는 영산강 전국 가요제(17일), 전라필하모니 오케스

트라(18일) 공연 등을 비롯한 나주 시민이 함께하는 한마음 생활체조페스티벌(10일), 제31보병사단 군악대 공연(24일), 나주 시립국악단과 합창단 공연 등 30여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즐거워갈수록 아름다운 영산강변을 구경할 수 있도록 황포돛배를 운행하고 가족과 연인이 함께할 수 있는 바람개비·허수아비 만들기, 풍선아트, 기혼 씨주기, 캐리커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무료 커피숍과 간단한 먹거리 판매 부스도 운영중이다.

또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동안은



조명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축제로 기대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마한문화축제' 행사 첫날에는 개막을 알리는 천제에 이어 신촌리 고분군에서 고분군제가 열리고, 국립나주박물관 행사장에서는 소도제가 진행된다. 또 나주교육지원청과 함께 마한어린이 재공연, 청소년 역사노래 부르기 경연대회, 마한청소년 밴드공연, 마한역사 연구 발표대회 등 다양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축제 둘째 날인 31일에는 마한인 어울마당, 나주 들노래 시연, 마한역사 재현 뮤지컬 등이 예정돼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마한역사문화유적지인 국립나주박물관과 전남고분군일원에서 '마한인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마한축제 시작된다.

마한의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광주·전남지역 청소년들에게 마한 역사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함께 2000년 마한역사 제

마한어린이 재공연, 청소년 역사노래 부르기 경연대회, 마한청소년 밴드공연, 마한역사 연구 발표대회 등 다양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축제 둘째 날인 31일에는 마한인 어울마당, 나주 들노래 시연, 마한역사 재현 뮤지컬 등이 예정돼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에 가장 적합한 쌀 품종은 뭘까요?

식량작물 종합평가회 개최

현품·안백·전남3호 권장

나주에 적합한 쌀 품종은 수매 품종인 새누리과 새미미 외에도 현품, 안백, 전남3호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농업기술원 이인박사는 최근 시범사업 대상농가와 쌀 전업농가 등 나주지역 농업인 70여명과 쌀 평가회를 갖고 나주 쌀의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수매품종 외에도 백업고병에 강한 전남3호와 미질

등이 우수한 현품, 안백 등을 권장했다.

이 박사는 또 식량작물 최신 기술 보급과 미질, 수량, 병해충 등에 강한 30여종의 품종에 대해서도 현장 교육을 실시해 참가 농업인의 공감을 얻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업인들이 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선별적으로 우량종자를 선택해 재배할 수 있도록 종자보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농사방법에 대한 전문교육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백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약식	12,500원	8,500원
약식+특별식	14,500원	9,000원
	5,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헤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금리 부담은 낮게, 대출은 쉽게!

광주문화신협, 북광주신협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아파트 담보대출(특별금리상당) 최저금리 적용으로 감정이 최고 80% 까지 가능 추가 신용대출 가능	상가 담보대출 빌딩, 단독상가, 아파트상가 높은 원도와 낮은 금리로 신용에 따라 상가대출+신용대출 까지~ • 대출금리: 특별 우대금리 • 대출한도: 최고 50억
자영업자와 직장인을 위한 신용대출 간단한 대출 절차로 최고 7천만원 까지 가능	정부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 사업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생계자금 최고 1천만원
자영업자(무담보/무보증) 승승장구론 개인(창업) • 임대사업장 최대 2천만원 자금대출 • 자가사업장 최대 3천만원 운영자금대출 / 최대한도 7천만원	아파트 임대보증금대출 전세 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

블루밍지점 (광주광역시 서구) 513-4150 매곡지점 (매곡동) 572-4150 침단지점 (광주광역시 서구) 576-4150

북광주신협 일곡지점 (일곡동) 572-8167